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녹) 연중 제16주일 ( 조부모와 노인의 날 )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김지선 소피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녹) 연중 제16주일 ( 23. 7. 23.)

\*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 주님의 파스카를 기념합니다. 말씀과 생명의 빵 안에 계시는 성자를 알아 뵈고, 그분을 참된 예언자요 목자로 모시어, 영원한 기쁨의 샘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 지혜서 12,13.16-19 ):

13 만물을 돌보시는 당신 말고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6 당신의 힘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지니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17 정녕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에만 당신께서는 힘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십니다.

18 당신께서는 힘의 주인이므로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때에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19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 로마서 8,26-27 ):

형제 여러분, 26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27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 복음( 마태복음 13,24-30):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24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25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밭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26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27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28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29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밭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30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밭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 전례

본기도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  
○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 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알렐루야.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 미칩니다”(루카 1,50)

**기도**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를 이끄시어, 교회가 연대의 힘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화해의 원천이신 주님, 남북으로 갈린 저희 민족을 살피주시어, 갈등을 부추기는 국제 상황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평화로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3.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사회의 어른인 노인들을 굽어살피시어, 그들이 신체적인 불편과 고독감으로 삶의 기쁨과 힘을 잃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쁨의 샘이신 주님, 저희 지역의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웃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게 하소서.

믿음과 희망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님,  
무관심해져 버린 이 인류를 위한 모범이시니  
저희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하느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찬미하게 하소서.

용기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님,  
저희 마음을 아시오니  
저희가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저희 삶을 신뢰로 어머니 손에 맡기오니  
저희 상처를 낮게 하시고  
어머니의 자애로 저희 여정에 함께하소서.

사랑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님,  
여기 함께 계시어  
저희가 가족의 일치를 보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니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저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저희의 나약함을 굽어보시어  
저희 마음에 위로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삶의 아름다움을 증언하고  
삶은 유한하지만  
그 너머에는 우리를 안아 주시는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 가운데에 신앙의 자취를 남기게 하소서.

**♪ 성가 ♪**

- 입당 :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 봉헌 :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 성체 : 154 (주여 어서 오소서) 160 (하느님의 어린양)
- 파견 : 31 (이 크신 모든 은혜)

아멘.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123.00 • 교무금 € 0.00